Monthly Report
마이다스액티브주식형투자회사

자산운용보고서
2008년 4월

Fund Facts

투자목적

적극적인 종목선택과 자산배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종합주가지수를 앞서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운용개시일: 2001.03.06
펀드규모: 435억원(순자산 기준)
총보수: 순자산평잔의 연 2.78%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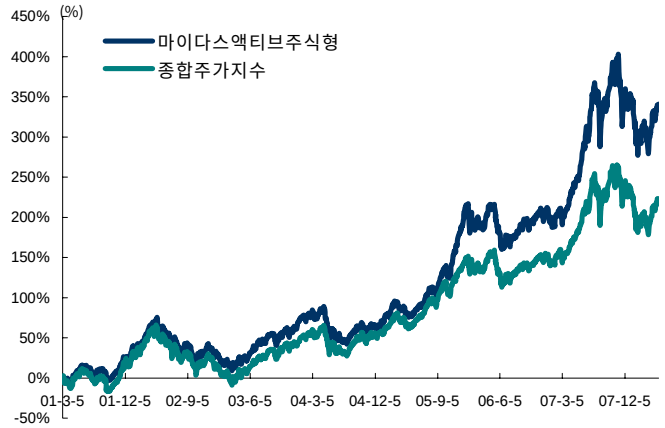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액티브주식형	6.91%	14.21%	-11.11%	30.66%	340.87%
종합주가지수	7.13%	12.36%	-11.59%	18.36%	222.87%
초과수익률	-0.22%	1.85%	0.49%	12.29%	118.00%

※펀드 기준가 및 수익률은 Class C1 기준임.

수익률 추이

(2001.03.05~2008.04.30)



펀드매니저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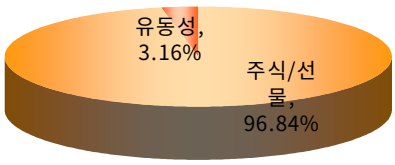
지난 4월 한 달간 펀드는 6.91%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중 종합주가지수는 7.13% 기록하였습니다. 본격적인 1분기 실적장세를 맞아 상승률이 컸던 전기전자, 화학, 제약업종 등을 비중확대 하였으나, 은행업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중확대를 하지 못하였고,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건설, 운수장비, 보험, 증권 업종 등의 편입비율이 다소 컸던 점이 참고지표 대비 초과수익을 시현하지 못한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주식 시황]
4월 한 달간 시황은, 미국의 부동산 위기, 유가 및 환율의 영향 등 매크로 지표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개별기업의 실적과 향후 전망에 집중하는 실적장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괄목할 만한 실적개선과 긍정적인 향후 전망으로 지수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1,800포인트 이상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요 업종을 살펴보면, 종이목재, 화학, 제약, 전기전자, 전기가스, 은행, 서비스업종 등이 상승폭이 컸던반면, 음식료, 섬유의복, 철강, 기계, 운수장비, 유통, 건설, 운수창고, 통신, 보험, 증권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4분기 중 가장 큰 악재였던 서브프라임 사태가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고 기업실적의 호전 등 긍정적인 신호가 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등 주도업종 및 주도주의 순환매에 적극 대응하여 수익률 제고를 추구할 계획입니다.

[자산배분]
펀드 포트폴리오 주식 보유분의 70% 수준은 당사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준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나 중형주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 수준은 모멘텀이 있는 중형 옐로우칩이나 실적개선이 뒷받침 되는 소형주 중 엄선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펀드에서 현물주식은 95% 내외의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목선택]
4월에는 보유 포트폴리오 중 LG화학, 대한제강, 국민은행, LG전자, 오리온, SK에너지, 아모레퍼시픽, 유한양행, 한샘, CJ제일제당, CJ, 우리금융,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의 수익률이 양호했던 반면 금호산업, LS산전, 한화, 대한전선,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KCC, STX조선, KT, 두산인프라코어, 동부화재, LG디스플레이 등은 수익률이 저조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금융지주, 효성,기업은행, SK케미칼을 신규편입하였고, 두산중공업, 유니슨, LG데이콤, 한국전자금융, 코웰이홀딩스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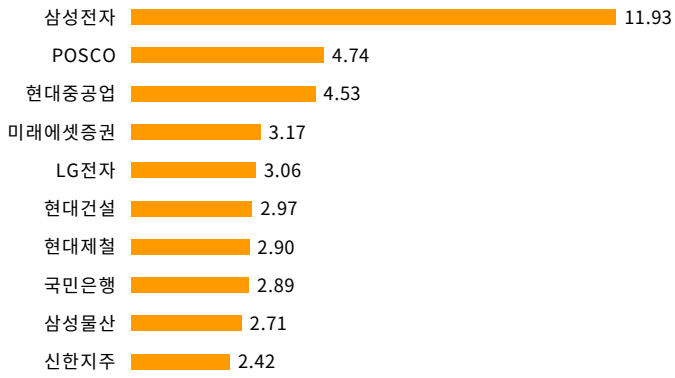
포트폴리오 현황



(현물주식편입비:92.99%,선물포함시 편입비:92.99%)

상위보유종목

(순자산총액 비중 41.33%)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